경제분야 등 인도 협력 확대…'500억달러 교역' 발판 마련

〈2030년〉

李 대통령, 인도 모디 총리 정상회담
에너지 공급망 등 공조강화 방안 논의
비즈니스 포럼 참석… 기업 협력 당부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0일(현지 시간) 뉴델리 대통령궁 광장 라슈트라바티 바반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드라우파디 무르무(왼쪽 세번째)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역내 평화와 에너지 공급망에 대해 논의했다. 또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도 적극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도 정부가 준비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모디 총리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첨단기술·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수준을 끌어올릴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최근 중동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극도로 혼란하고,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 대비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현지 매체 '타임즈 오브 인디아' 인터뷰에서 "한국은 모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도록 인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러한 공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련 국제 무대에서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인도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수급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주요 에너지 수송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서아시아 위기가 글로벌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인도는 모두 원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며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는 양국 국민의 안전은 물론 국가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양국이 함께 추진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라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인도의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은 공동의 국익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정상회담을 마친 후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산업통상부와 인도 상공산업부가 공동 주최한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 경제인 250여명이 함께했다. 인도 측에서도 산마르(Snamar)그룹 비제이 산카르 회장과 에사르(Essar)그룹 라비칸트 루이아 부회장 등 기업인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양국의 대표 기업인들에게도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선 첨단 제조 및 철강, 디지털 경제, 에너지 전환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포스코, 현대차, 크래프톤 등 기업 관계자들이 발표를 한 뒤 양국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측은 조선, 디지털,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0건의 민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여기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인도상공회의소 간 협력 MOU, GS건설이 참여하는 인도 풍력 리파워링 사업 MOU, 네이버가 참여하는 인도 지도 서비스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MOU 등이 포함됐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주요 그룹 총수, 아시아 사업 확장 팔 걷어

신흥시장·생산거점 동시 확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분산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인도·베트남 순방을 통해 아시아 사업 전략 변화에 속도를 높인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사우스'의 가파른 성장세가 맞물린 가운데 신흥 시장과 생산 거점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인도는 현지 시장 공략과 확장을 위한 지역이며 베트남은 생산과 수출, 공급망 운영의 핵심 축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등은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맞춰 출국해 현지 경제 사절단 활동을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인도의 거대 시장과 베트남의 생산 효율성이 국내 기업의 첨단 기술과 결합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단순 시장 확대를 넘어 글로벌 최상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실행력을 높여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함이다.

우선 삼성전자는 인도 최대 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와의 협력에 나설 방침이다. 이 회장은 이번 방문 기간 중 무케시 암바니 회장과 만나 인도가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과 차세대 통신(6G), 배터리 등 미래 신기술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베트남에서는 현지 생산 거점을 점검하고 경쟁력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인도 진출 30주년을 기점으로 현지화 전략을 고도에 속도를 높인다. 지난 1월 현지 공장을 점검한 정 회장은 이번 순방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재회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인도를 아세안 시장 공략의 전진기지로 삼아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에서는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한 생산능력 확대가 실행될지가 관심사다. 현대차는 베트남을 동남아 시장 공략의 전진기지로 삼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현지 사업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LG그룹은 인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전략적 핵심 기지로 육성하는 '글로벌 사우스 2.0'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사업 확장이 이어지고 있다. LG전자는 베트남을 전장 부품 사업의 핵심 생산기지로 육성하고 있으며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도 주요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베트남에서 합류해 사절단을 이끈다. SK그룹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반도체 소재, 데이터 인프라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월 베트남 응에안성에서 추진되는 약 3조3000억원(23억 달러) 규모의 '퀸랍(Quynh Lap) LNG 발전 프로젝트'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며 현지 에너지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LNG 터미널과 가스복합발전소 사업을 비롯해 배터리·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

포스코그룹, 글로벌 사우스 전략 '탄력'

장인화 회장, 현지사업 후속논의 전망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사진**)이 인도·베트남 순방에 동행하면서 포스코의 현지 생산·공급망 구축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스코는 인도에서 일관제철소 합작을 추진하며 생산체제 구축에 나서는 한편, 베트남에서는 배터리 소재와 물류·에너지를 아우르는 공급망 확장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사업 관련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재명 대통령의 19~24일 인도·베트남 순방에 맞춰 두 국가에서 추진해온 주요 프로젝트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장인화 회장은 경제사절단에 동행하며 현지 주요 프로젝트들을 직접 챙길 예정이어서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는 물론 포스코의 현지 밸류체인 확대를 통한 글로벌 사우스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인도에서는 일관제철소 프로젝트가 실행 단계에 있다. 포스코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인도 오디샤주에 연산 600만톤 규모의 통합 제철소를 설립하기 위해 인도 JSW스틸과 50대50 합작법인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8월 주요 조건 합의서 체결 이후 투자 금액과 지분 구조까지 확정되며 사업이 구체화 단계로 넘어갔다는 평가다.

포스코는 50억8800만루피(약 800억원)를 투입해 JSW 자회사 사프란 리소시즈 지분 50%를 인수한다. 해당 자금은 부지 확보를 위한 초기 투자로, 오는 12월말까지 거래를 마무리하면 합작법인으로 전환된다. 이후 설비투자는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도 투자는 성장성이 높은 현지 철강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인프라 투자와 자동차 산업 확대로 철강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는 기존 사업에서 나아가 생산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인도 내 자동차강판 생산법인인 포스코 마하라슈트라 스틸의 매출은 1조9625억원, 강판 가공거점인 포스코 인디아 프로세싱센터와 푸네 프로세싱센터의 매출은 각각 1조383억원, 5619억원을 기록했다.

베트남에서는 배터리 소재 중심의 공급망 확장이 진행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4억달러를 투입해 타이응우옌성에 연산 5만5000톤 규모의 음극재 공장을 건설한다. 베트남 최대 건설·부동산 기업인 비글라세라와 협력해 하반기 착공, 오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류와 에너지 사업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포스코플로우는 최근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과 발전소 건설 투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신뢰받는 AI 메모리 솔루션 기업 자리매김"

〉〉 1면 '저전력 D램…'서 계속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AI 가속기의 연산 성능이 아무리 높아져도 데이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전체 시스템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HBM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전력·비용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중간 계층 메모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소캠2가 본격 확산되면 GPU·HBM은 프리미엄 성능을, 소캠2는 AI 인프라의 총소유비용(TCO) 최적화를 각각 책임지는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HBM·DDR5·LPDDR·CXL 메모리·소캠으로 이어지는 '풀스택 AI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습부터 추론까지 AI 인프라 전 구간을 아우르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김주선 SK하이닉스 AI Infra 사장(CMO)은 "글로벌 AI 고객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고객이 가장 신뢰하는 AI 메모리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社告

② 일자 : 2026년 5월 19일(화)
③ 장소 :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④ 기타 :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년 5월 22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 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02-721-9851)로 문의 바랍니다.

metro